

식량작물 분야 농업인의 농업회계 활용실태 및 인식 연구

박계원^{1*}, 최성희¹, 조성연¹, 민병익¹, 방윤정¹

¹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서론]

농산물 시장개방 등 여러 위협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정확한 경영기록을 바탕으로 한 농업회계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으로 농업회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농업회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농업회계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회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교육보다는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식량작물 분야 농업인들이 농업회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농업회계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자료 및 방법]

식량작물 농업인들의 농업회계 교육 실태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식량작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영기록 실태, 회계교육 이수 경험, 회계교육 수용도와 성과, 농업회계 교육 만족도 등을 실시하였다. 실제 농업인들이 농업회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여 향후 농업회계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농가 경영기록 및 농업회계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음’이 59%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활용하고 있음’이 30%, ‘활용하다가 중단함’이 응답자의 11%였다. 기록한 내용은 주로 ‘영농일지로 활용’(46.9%)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입 및 판매관리’(34.7%)라고 응답했다. 경영기록이나 회계를 활용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필요성이 없어서’(47.8%), ‘시간이 부족해서’(23.2%), ‘기록이 어려워’(13.0%)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기록 및 농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사항은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수익, 비용 거래내용’(31.0%), ‘농작업 관련내용’(29.6%), ‘가계의 수입과 지출’(21.2%)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영기록 및 회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했을 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7%,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19%,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4%였다. 따라서 경영기록과 농업회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농가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 관련 교육 시 필요과목은 ‘소득분석방법’과 ‘농산물 마케팅’, ‘경영진단분석방법’, ‘경영관리 개선’ 등 순으로 원하고 있어 향후 교육과정 개설 시 소득분석이나 경영진단분석 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기는 ‘1~3월이 좋다’는 응답자가 78.3%로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경영기록 및 회계 가장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 노트나 다이어리’와 ‘농협이나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기식 경영일지’, ‘달력’에 기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7.5%였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회계나 경영기록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라서(37.2%)나 사용법을 몰라서(15.4%)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히면 수월하게 농업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호하는 회계교육 프로그램은 ‘농업회계기초+프로그램 사용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 사용법’(20%), ‘농업회계기초+분개실습+재무제표해석+농업세무기초+프로그램사용법’(18%), ‘농업회계기초+분개실습+프로그램사용법’(15%) 순으로 나타나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되 심화과정에서 재무제표 해석이나 세무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이론교육뿐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을 병행하여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농업회계 실습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경영기록 및 회계기장을 실시하는 이유는 ‘작업일지를 작성 후 활용하기 위해서’가 37.1%,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24.2%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작업일지를 작성하며 농업회계기록을 같이 수행하고 그 결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영기록이나 회계기록 후 달라진 점으로는 문제해결능력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경영기록 후 소득이 10%이상 증가했다는 농가가 46.9%였고, 10%이상 비용이 감소한 농가는 35.5%였다.

조사한 식량작물 농가들은 농업회계와 경영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이 바쁘고 방법을 몰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기록이나 회계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단순 기초교육이 아닌 경영진단이나 농업세무 등까지 원하고 있어 수준별 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식은 농업회계 이론교육과 프로그램 교육을 병행하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시 실제 소득증대와 비용이 감소한 농가의 사례와 농업회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소개한다면 농업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사업(과제번호: PJ0126160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3-220-5581, E-mail. airavu@korea.kr